

윤동주 시의 공간과 시의식 연구

김 소 정(경상대 국어국문학 강사)

〈 목 차 〉

- | | |
|-----------------|------------------|
| 1. 들머리 | 4. 이중적 공간에서 길 찾기 |
| 2. 단절된 공간과 소의의식 | 5. 마무리 |
| 3. 개방된 공간과 표류의식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윤동주 시에 선택된 공간을 유형화하고 그 속에 투영된 시인의 세계인식과 시의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 경험에서 발생하며 특정 공간에 투사된 주체의 정서와 기억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시인의 의식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공간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 있고 공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상상력과 의식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윤동주 시에서 단절된 공간은 화자 이외에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외부 세계와 차단된 공간으로 묘사된다. “우물”과 “거울”, “방” 등의 공간에는 화자만이 존재할 뿐 타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방이 막힌 단절된 공간에서 주체는 홀로 된 화자를 설정하여 부끄러움과 소외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철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 정신적 성숙과 삶에의 의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편적 정서와 달리 “거리”, “언덕”, “정거장” 등 개방된 공간들은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표류의식을 유발하고 있다. 그것은 시인의 삶과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체로 하여금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동주 시에 선택된 공간 중에는 상황에 따라 상반된 시의식이 표출되어 주체의 혼란한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공간들이 있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혼용되기도 하고 동일한 공간에 대해 절망적 인식과 이상세계로의 지향이 어우러져 이중적 의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세계인식을 거쳐 화해로운 공간과 희망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려는 주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단절된 공간, 개방된 공간, 이중적 공간, 소외의식, 표류의식, 길 찾기

1. 들머리

시인은 작품을 매개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각각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주체¹⁾에 의해 선택되거나 배제되어 시인의 세계인식과 지향성을 표출하는 의식의 조각들이다. 이러한 조각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다양한 세계형상과 의미부여 방식에 의해 시인의 인식체계와 정체성이 표출되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은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하며 그것은 공간²⁾에 대한 구체적 경험과 일맥상통한다. 그중에서도 문학 공간이나 장소의 해명은 텍스트에 자리 잡은 시인의 미적 인식과 상상력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현

1) 주체는 시인과 달리 시 텍스트 내에서 자기의식을 가지고 시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연술을 주관하는 개체로서 시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새롭게 구성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2) 이-푸 투안에 의하면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19면.)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주체가 작품 속에 선택한 공간은 이미 가치부여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공간’으로 통일한다.

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관계들을 질서화하고 구조화하는 시인의 세계인식의 한 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³⁾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간이란 ‘물리적 맥락으로서 시간, 공간, 물질이 어우러져 있는 물질의 객관적 형태’⁴⁾를 뜻하지만 문학작품 속에 선택된 공간에는 시인의 기억과 현재 인식이 담겨있다. 그것은 삶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억이며 그것에는 주체의 경험과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 시인은 감각을 통해 수용된 대상에 자신의 상상력과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공간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기억을 선택하고 활성화하며 공간은 은유적으로 또는 환유적으로 대상에 대한 그의 인식을 드러내고 기억을 소환한다. 공간은 그 안에 존재하는 삶을 정의하고 제한하며 규정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삶의 형식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⁵⁾ 따라서 작품 속에 선택된 공간의 의미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대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한 시인의 시적 상상력과 시의식을 밝혀내는 데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윤동주 시에서 공간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서와 세계인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은 시인의 정서적 반응과 시의식을 표출하기 위한 장치로 설정되었다. 시적 공간은 시인의 경험에 의해 재현되거나 시적 상상력에 의해 재해석되기도 한다. 그것은 실재하는 공간이든 재구성된 공간이든 주체의 기억과 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임이 틀림없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시적 대상들은 다양한 체험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들에 대한 의미화는 공간적 특징을 만들어내고 시인의 시의식과 정체성을 반영한다.

그동안 윤동주 시에 관한 연구는 많은 논자에 의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시인의 생애와 관련된 역사 전기적 논의나 다양한 문학이론, 사회

3) 장만호, 「해방기 시의 공간 표상 방식 연구」, 『한국시와 시인의 선택』, 서정시학, 2015, 287면.

4) 에드워드 소자 외, 이무용 외 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106-107면.

5)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194면.

심리학, 기호학 등을 접목한 형식주의적 논의 등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또 종교적 차원에서 그의 작품을 평가하거나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미의식을 규명하는 등의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 속 공간에 대한 해명은 개별 공간에 관한 단편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시인의 현실 인식이나 시의식과 관련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공간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별 공간은 ‘방’인데 여기에 주목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수복은 시적 자아의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방’과 ‘거울’의 상징성을 규명하였다.⁶⁾ 이명찬은 시인의 삶과 관련해 서울, 용정, 동경으로 물리적 공간을 구분하고 각각 ‘방’의 의미를 고찰하였다.⁷⁾ 남송우는 일본 유학 이후의 작품들로 한정 지어 ‘방’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⁸⁾ 조동구는 윤동주, 이육사, 심연수 시를 비교하며 ‘방’의 상징적 의미를 ‘창’과의 관련성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승철은 백석과 윤동주 시의 ‘방’ 질감 비교 연구를 통해 ‘방’이 지닌 상징성을 규명하였다.⁹⁾ 특히 남송우는 윤동주 시의 ‘방’ 연구 이후에 ‘거리’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는데, 윤동주 시인이 실제로 거주했던 만주, 한국, 일본에서의 공간 인식의 양상을 ‘거리’라는 모티프를 통해 고찰하였다.¹⁰⁾ 윤동주 시의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하늘’, ‘거리’, ‘방’의 의미를 각각 규명한 심재희의 논의도 개별 공간에 관한 연구로 볼 수 있다.¹¹⁾

6) 김수복, 「윤동주 시의 원형 상징 연구 2-‘방’과 ‘거울’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논문집』 20집, 단국대학교, 1986, 7-26면.

7) 이명찬, 「윤동주 시에 나타난 ‘방’의 상징성」, 『국어국문학』 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335-377면.

8) 남송우,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의 한 양상」, 『한국문학논총』 40집, 한국문학회, 2005, 167-188면.

9) 이승철, 「백석과 윤동주 씨의 ‘방’ 질감 고찰」, 『비교문학』, 67권, 한국비교문학회, 2015, 233-261면.

10) 남송우,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만주, 한국, 일본에서의 공간 인식의 한 양상-〈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53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19-31면.

11) 심재희, 「윤동주 시의 공간과 장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5집, 한국문학이론과

이와 달리 시인의 현실 인식과 관련해 논의를 전개한 임현순은, 운동주 시의 공간을 디아스포라적 체험과 관련하여 실향의 공간, 질병의 공간, 부정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작품 속 저항의지를 규명하였다.¹²⁾ 개별 공간에 대한 의미화가 아닌 운동주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간이 지닌 의미를 밝히려 한 시도이나, 시인의 생애에 집착한 나머지 전체적인 의미화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윤정은 운동주 시의 시성(詩性)을 공간성으로 파악하고 발생학적 지점에서 연구하여 공간의 문체적 특징, 소재적 특징 등을 고찰하였다.¹³⁾ 이 논의는 시인에 관한 역사 전기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작품이 지닌 구조상의 특질을 밝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인용된 작품의 분석이 운동주의 일부 시에 국한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운동주 시에 관한 연구는 실로 엄청난 분량에 이를 만큼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시인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 속 공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고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운동주 시에 등장하는 공간은 ‘길, 거리, 고향, 방, 하늘’ 등 얼핏 보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것들이고, 이들 또한 작품 속에서 상징성을 띠기보다는 화자의 정서를 전경화하는 시적 배경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난해한 상징이나 세련된 비유들이 시인의 시의식을 숨기고 있지 않다. 대체로 평이한 진술형 문장들이 고백적 어투로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저한 현실 인식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시인의 자기반성과 세계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선택한 공간 속에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 속에 묘사된 공간을 유형화하고 그 속에 재현 혹은 배제된 대상을 의미화하는 작업은 운동주의 과거 기억과 현재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식과 지향성을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

비평학회, 2019, 69-100면.

12) 임현순, 「운동주 시의 디아스포라와 공간-시의 창작방식을 통해 나타난 저항의 지」, 『우리어문연구』 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481-509면.

13) 김윤정, 「운동주 시의 공간적 특질 연구」, 『한국시학연구』 24집, 한국시학회, 2009, 143-169면.

의는 윤희주의 시를 새롭게 이해하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단절된 공간과 소외의식

그간 윤희주 시의 의미를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정서는 부끄러움과 자책 등의 자기 성찰이었다. 많은 시평들에서 그는 세계와 타자에 집중하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응시와 그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응시와 성찰이 주로 표현되는 작품 속에서 주체의 소외의식이 드러나는 공간들은 자발적, 비자발적 행위로 인해 단절된 공간이 대부분이다. 시인은 외부세계와 차단된 공간을 설정하여 물리적으로 고립시킴과 동시에 주체의 소외감을 환기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 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자화상(自畫像)」

이 시의 주된 공간은 “우물”이다.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화자로 설정된 우물 밖 자아가 “우물”로 상징된 공간을 통해 또 다른 자신, 즉 “사나이”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때 “우물”은 라캉의 거울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타자화시켜 나르시시즘을 발현시키는 상징적 공간이자 자기 응시를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는 단절된 공간이다.

주체는 우물을 경계로 화자를 분열시킴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낸다. 사나이는 “추억처럼” 과거에 존재했으며 화자가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는 양가적 감정을 드러내는 이상적 자아이다. 주체는 시적 현실 속 실제적 자아와 우물 속 이상적 자아의 통합을 시도하지만 그들의 간극은 과거와 현재처럼 멀기만 하다.

자기 응시를 가능케 하는 “우물”은 현실과는 단절된 “산 모퉁이를 돌아논 가 외딴” 곳에 자리하고 있고 이때 발견한 또 다른 자아는 화자와는 다른 모습이다. 작품 속에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서로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의 차이로 드러난다. 사나이가 있는 우물 속 공간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어 화자가 그리워하는 이상적 공간이지만 이제는 “추억처럼” 희미해진 과거의 공간일 뿐이다. 화자가 거처하는 현실적 공간에 대한 정보는 배제되어 있지만 우물 속 공간과는 다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주체는 공간의 변화로 인해 병적 나르시시즘을 겪고 있다. 하인즈 코헛에 의하면 삶의 과정에서 환경과 대상이 주는 정서적 부담이 정신구조의 균형을 깨뜨리게 될 때 자기에게 투자된 삶의 에너지가 변형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정신적 상태를 병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 즉 주체가 주어진 환경의 방해적 요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증상이다.¹⁴⁾ 과거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평화롭고 행복했던 공간이 이제는 산모퉁이 논 가 외딴 곳, 즉 현실과는 동떨어진 우물 속에 “추억처럼”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주체는 소외감과 외톨이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되찾고 싶지만 무기력한 화자는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화자가 우물 속 사나이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이러

14) 엘런 시걸, 권명수 옮김, 이계훈 감수,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326면.

한 이유 때문이다. 이미 삭막하게 변해버린 공간 속에 살고 있는 화자는 이 상징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사나이를 질투하고 미워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 공간 속 자신을 그리워하고 다시 찾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시인 윤동주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시인과 작품을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자화상(自畫像)」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일견 일리가 있다. 군이 일제 암흑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던 젊은 시인이 건강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절망적 환경이 주는 비극적 인식이 “우물”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공간을 되찾을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이를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괴리감이 주체로 하여금 소외 의식을 갖게 했던 것이다.

사방이 막힌 단절된 공간을 설정하여 극도의 소외감을 보여주는 다른 작품으로 「참회록(懺悔錄)」을 들 수 있다. 이 시에서도 주체는 분열되어 등장하며 우물을 대체하는 공간으로 구리 거울이 선택된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하여 거울을 통해 또 다른 자아를 대면한다. 화자는 거울 속 자아에 대해 “욕된” 유물과 “슬픈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자화상(自畫像)」의 화자가 우물 속 자아에 대해 그리움과 부러움을 표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작품 속 화자는 일관되게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살아온 짧은 인생 “만 이십사 년 일 개월” 전체를 부끄러워하며 자기혐오를 표출한다. 화자는 “그 어느 즐거운 날”인 미래에조차도 “그 젊은 나이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자신을 참회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는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열심히 거울을 닦으며 “파란 녹”을 지워내려 하지만 거울 속 자신과의 화해에는 실패하고 만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기 때문이다.

「참회록(懺悔錄)」에서 “구리 거울”은 외부세계와 차단된 공간으로 설정되어 주체의 부끄러움과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도 주체가 처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욕된 왕조의 유물처럼 남아 있는 자기 자신을 지우기 위해 극도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엔 외톨이가 되어 “홀로” 남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작품은 윤동주가 창씨개명을 한 직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으로의 유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 할지라도 시적 주체의 정서적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심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구리 거울”이라는 단절된 공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결국에는 외톨이인 채 “홀로” 걸어가게 하는 “슬픈” 자아로 표출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웁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롭은 일이웁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웁기에-//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들여야 할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안
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빗속에 젖어 있
사웁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 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思想)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웁니다.

- 「돌아와 보는 밤」

윤동주 시에 선택된 공간 중에서 그간 가장 많은 논의를 가져온 것 중 하나는 ‘방’이다. 방은 물리적 측면에서 외부세계와 분리되어 그만의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인식된다. 또한 주체의 자기 성찰 혹은 자기 응시의 공간으로 주목받아왔다. 방 밖의 세계는 인간에 대한 적의와 대결이 상존하기에 갈등과 대립이 항존하는 공간이라면, 방은 그 적의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꿈꾸는 공간¹⁵⁾으로 평가되었다.

윤동주의 작품에서도 방은 “후어-한 방”(「유언(遺言)」), “방(房)안”(「눈

15) 가스통 바슐라르, 박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118면.

오는 지도(地圖)), “좁은 방”(「돌아와 보는 밤」), “어둔 방”(「또 다른 고향(故郷)」),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흰 그림자」), “어느 조용한 하숙방”(「사랑스런 추억(追憶)」), “육첩방(六疊房)”(「쉽게 씌어진 시(詩)」) 등으로 구체화되어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시에서 ‘방’은 언제나 외부세계와의 대결에서 벗어난 평화롭고 화해로운 공간으로 의미화 되지는 않는다.

위의 시에서 ‘방’은 물리적으로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공간이지만 사실상 “빗속에 젖어 있”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어두운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타자와 단절되어 외톨이 의식을 느끼는 소외된 공간으로 등장한다. 대결의 장이 되는 방 밖의 공간은 ‘낮’과 등가의 의미를 이루는데 그곳은 “하루의 울분”이 가득하고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피로롭은” 곳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는 방 안과 방 밖의 공간 모두가 축축하고 어두운 “좁은 방”으로 인식된다. 그 속에서 화자는 혼자임을 느끼며 “가만히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시의 주체는 앞의 시편들에서와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자화상(自畫像)」이나 「참회록(懺悔錄)」에서 화자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공간 안에 홀로 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사상(思想)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는 소리를 듣게 된다. 즉, 소외의식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 정신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홀로 침전(沈澱)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 위안과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적극적인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중략)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쉽게 씌어진 시(詩)」 중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시는 일본 유학 시절에 창작된 윤동주의 마지막 작품이다. 어떤 이는 “윤동주에게 ‘남의 나라’가 아닌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태어난 간도, 식민지 조선 그리고 유학 후 일본 제국의 도시 그 어느 곳도 ‘남의 나라’가 아닌 곳은 없었다.¹⁶⁾”라고 하였지만, 이 작품만큼 직접적으로 낯선 타국의 공간에 대한 주체의 인식이 드러나는 시는 드물다.

그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 “육첩방(六疊房)”이 “남의 나라”임을 두 번이나 강조한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에겐 소외되고 유폐된 공간이다. 그 속에서 부모님의 “땀내와 사랑내”가 담긴 학비로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러 다니는 행위에 대한 자기 성찰이 “홀로 침전(沈澱)”하는 화자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화자의 곁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동무들을 “죄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은 화자의 쓸쓸함은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사랑스런 추억(追憶)」) 떠올리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다를 바 없다.

이 시의 주된 공간인 “육첩방(六疊房)”은 화자의 정서를 밑바닥까지 끌어당기는 상심의 공간이지만 한편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긍정과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희망의 공간이기도 하다. 주체는 “시인”인 화자를 설정

16) 김신정, 「만주 이야기와 윤동주의 기억」, 『돈암어문학』 30집, 돈암어문학회, 2016, 189면.

하여 시와 삶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한다. 시는 인생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반성한다. 그럼에도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생각하며 “한 줄 시를” 통해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고 부끄러움을 기록한다.

그리고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단절된 공간에서의 자기반성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모는 행동을 불러온다. 이 작은 행위야말로 주체가 “눈물과 위안으로” 스스로를 용서하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겠다는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윤동주 시에서 단절된 공간은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화자 이외에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고립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자발적, 비자발적 행위로 인해 사방이 막힌 단절된 공간에서 주체는 홀로 된 화자를 설정하여 부끄러움과 소외의식을 드러내었다.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는 그 공간을 벗어나려는 어떤 행위도 보이지 않으며 그것을 함께 도모할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물이나 방, 거울 등의 공간에는 화자만이 존재할 뿐 타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외부세계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시적 화자는 “가만히 들여다” 보거나 “눈을 감”는 등 소극적 행위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응시를 통한 철저한 성찰의 과정을 거쳐 정신적 성숙과 삶의 의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개방된 공간과 표류의식

인간은 대체로 단절된 공간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외부세계로 향해 열린 공간에서는 해방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동주 시의 시적 주체는 개방된 공간에서 오히려 세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며 불안감과 절망감을 드러낸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으며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큰 것처럼 주체는 자신이 서 있는 공간에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시인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의 관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동주가 살았던 시기(1917~1945)는 최소한의 자유와 자존심마저 박탈당한 채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했던 일제 암흑기였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운동주는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좌책감과 절망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작품 속에서 현실은 “손 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무서운 시간」) 삭막한 곳이며 그 속에서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흐르는 거리」) 떠돌고 있었다.

으스름히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러워 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신고서, 안개 속에 잠긴 거리는, //

거리 모퉁이 붉은 포스터 상자를 붙잡고 섰을라면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등, 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상징일까? 사랑하는 동무 박(朴)이여! 그리고 김(金)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 보세’ 몇 자 적어 포스터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휘장(金徽章)에 금단추를 빼었고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내림(來臨), //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 「흐르는 거리」

일반적으로 거리는 근대도시화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공간이다. 그곳은 상점과 자동차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여 있으며 모든 대상을 향해 열려 있는 탁 트인 공간이다. 이 시에서도 거리에는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들이 존재한다. 또 근대도시의 산물인 “붉은 포스터 상자”, “가로등”, “배달부” 등이 등장한다.

그런데 시적 주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거리’ 풍경이 아니다. 풍경이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상에 의해 선택되는 것, 선택되어 온 것이다.¹⁷⁾ 작품 속에서 거리는

“흐르는 거리”로 재구성된다. “하염없이 안개가” 흐르고 “모든 바퀴” 속 “가련한 많은 사람들”이 흐르며 “거리가 흘러간다.” 화자 역시 흐르고 있다.

이 작품은 1942년 일본 유학 시절의 불안정한 삶과 그 속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시인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안개가 자욱한 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흘러가는 거리는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주체의 불안정한 의식과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흐르지 않고 서 있는 것들이 있다. “붉은 포스터 상자”와 “가로등”이다. 이러한 대상들은 의미상 “사랑하는 동무” 박(朴)과 김(金)에게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시적 화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는 “금휘장(金徽章)에 금단추를 빼었고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를 “밤을 새워 기다”린다.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이 낯선 공간에서 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으로 떠돌이처럼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동무들과의 우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리’ 공간에서의 절망감과 떠돌이 의식은 「간판 없는 거리」, 「거리에서」, 「산골 물」 등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산골 물」에서는 “옷자락 물결 속에서 도/ 가슴 속 깊이 돌돌 샘물이 흘러/ 이 밤을 더불어 말할 이 없도다./ 거리의 소음과 노래 부를 수 없도다.”라고 하여 거리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임을 느끼며 소통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이유가 타자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이 돌돌 샘물이” 흐르기 때문임을 이야기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으로 한곳에 머무를 수 없기에 “가만히 가만히/ 바다로 가자”라며 떠돌이를 자처한다. 이때 “바다”는 모든 낯물이 모이는 도착점이자 주체가 지향하는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이 시에서도 주체는 열린 공간인 ‘거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다. 그에게 거리는 소음이 가득한 공간이자 괴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간일 뿐이다. 자신의 괴로움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고 함께 노래할 수 없기에 스

17) 이호덕 지음,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7, 43면.

스로 그곳을 떠나려 하는 것이다.

정거장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무도 없어,//
다들 손님뿐,
손님 같은 사람들뿐,

- 「간판(看板) 없는 거리」 중에서

위의 시 「간판(看板) 없는 거리」에서는 주인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시적 주체의 안타까움이 표출되고 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정거장에 아무도 없다는 표현과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손님 같은” 사람들뿐이라는 진술은 주체의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손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체의 강한 역사 인식이 시대적 절망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인의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뒷 구절의 “자애로운 현 와사등”, “다들, 어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주체가 비판하려는 대상이 주인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절망스러운 현실 자체임을 드러낸다. 아무도 아닌 듯 살아가는 “손님 같은 사람들”은 “집집마다 간판이 없”고 “빨강계/ 파랑계/ 불붙는 문자도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자애롭고 어진 사람들이다.

이 시가 창작된 1941년에는 한글 순문예지인 『문장』, 『인문평론』이 폐간되고 창씨개명이 진행되어 우리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위의 구절은 모국어를 빼앗기고 모두가 손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일제 치하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¹⁸⁾으로 보인다. 정서적으로 피폐해진 시대 상황에서 주인이 아닌 “손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우리 민족의 모습이 “정거장 플랫폼”에서 표류하는 시적 화자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둡고 개방된 공간 속에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주체의 불

18) 남송우, 앞의 논문, 26면.

안한 정체성은 그의 산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략)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胚胎)되고 이 어둠에서 성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기의 초점(焦點)인 듯 초체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받듯이 받들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압박이 내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나는 다만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중략)

- 「별똥 떨어진 데」 중에서

이 글에는 구체적 공간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별이 잘 보이고 나무가 서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언덕인 것으로 짐작된다. 서술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하루살이”에 비유하며 허공에 부유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스스로를 하루살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체의 자기정체성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같은 글에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며 떠돌이처럼 표류하는 자신을 비웃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윤희주 시에 선택된 ‘거리’, ‘언덕’, ‘정거장’ 등 세계를 향해 열린 공간에서 주체는 자유와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절망감과 표류의식을 드러낸다. 작품 속에서 공간의 의미는 묘사대상이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든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든 시인의 내면이 투영된 ‘주관의 지향성’과 깊은 관련을 맺¹⁹⁾는다. 윤희주 시인의 삶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작품 속에 묘사된 개방된 공간들은 주체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갖게 하여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표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88, 17면.

4. 이중적 공간에서 길 찾기

윤동주 시에 선택된 공간 중에는 일관된 이미지나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상반된 시의식이 표출되어 주체의 혼란한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공간들이 있다. 즉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혼용되기도 하고 동일한 공간에 대해 절망적 인식과 이상세계로의 지향이 어우러져 이중적 의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세계인식을 거쳐 화해로운 공간과 희망의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려는 주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또 다른 고향(故鄉)」

일반적으로 고향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안식처이자 회귀하고 싶은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윤동주의 다른 시 「고향 집」에서도 “납죽 하늘 저 밑에/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 집”으로 묘사되어 고향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이 시에서 ‘고향’은 따뜻한 남쪽에 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가 계시기에 늘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위 작품에서 고향은 “어둠 방”, “백골”, “바람”, “눈물” 등의 이미지와 어우러져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화자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고 그리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눕는다. 그 방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하고 우주에까지 뻗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향’에 대한 주체의 혼란한 인식은 분열된 자아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바라보며 시적 화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람 때문에 마모되어 가는 또 다른 ‘나’에 대한 연민과 아픔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화자는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인지, “백골이 우는 것”인지,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인지를 반문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모두 주체의 분열된 자아들이다.²⁰⁾ “백골”은 폭압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아를, “아름다운 혼”은 주체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진실된 자아를, 그리고 “나”는 이 모두를 인식하며 통합을 추구하는 현실적 자아를 드러낸다.

이 시에서 ‘고향’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찬 절망의 공간이자 화자를 이방인인 양 “쫓아보내는 디아스포라의 공간으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공간에서 주체의 의식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가 꿈꾸는 이상적 고향, 즉

20)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논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대표적으로 유재천은, ‘백골’은 죽어가는 자아의 모습일, ‘아름다운 혼’은 현실의 어둠과 대조되는 이상적이고 화해로운 공간을 지향하는 자아를, 그리고 ‘나’는 이 둘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 자아를 의미한다고 하였고(유재천, 「윤동주론」, 『배달말』 15호, 배달말학회, 1990, 73면.), 이승훈은 백골은 육체적·현실적 자아, 아름다운 혼은 정신적·이성적 자아를 표상한다고 하였다(이승훈 「윤동주의 시 이렇게 읽는다」, 권영민 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사상사, 1997, 172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기를 상실했을 때, 이 만족스럽지 못한 소외 상태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고향이 아스라²¹⁾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향은 화자를 내모는 절망적, 비극적 공간이자 또 다른 고향 즉, 이상세계로의 지향을 갖게 하는 이중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길」

위 작품에서 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은 “길”이다. 길은 대체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기능하며 한 공간을 확장시키는 역할 또한 담당한다. 길은 공적인 공간이자 사적인 공간이며 시공간적 의미로도 활

21)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브리히, 2011, 120-121면.

용된다. 이 시에서도 길은 여기에서 저기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길”은 표면적·공간적 의미로서의 길이 아니라 화자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고, “끝없이 연달아”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길임을 알 수 있다. 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운동주의 다른 시 「새로운 길」에도 드러난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중략)/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라고 하여 화자는 숲과 마을을 향해 뻗어있는 길을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위 시에서 ‘길’은 화자가 처해있는 상황이자 물리적 공간으로도 의미화된다. 작품 속 시적 화자는 돌담을 기준으로 담 이쪽 자아와 “담 저쪽” 자아로 분열되어 있다. 길을 걷는 행위 주체로서의 ‘나’는 돌담을 따라 걸으며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모른 채 “주머니를 더듬어” 길을 걷는다. 이때 주머니를 더듬는 행위는 그가 잃어버린 것이 화자의 외적 공간, 즉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것임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곳은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공간이다. 그곳은 “풀 한 포기 없는” 황무지와 같은 절망의 공간이다. 거기에서 화자는 자신을 “부끄러워 한다. 부끄러움이란 인간의 의지와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끄러움의 정서는 운동주의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서시」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나 「쉽게 씌어진 시」의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와 같은 부분은, 자신의 가치와 현실적 행동의 모순으로 인해 주체가 느끼는 부끄러움을 표출하는 것이다.

5연에서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다고 하였으나 하늘이 부끄러울 수는 없다. 화자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하늘은 늘 푸르르지만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6면에 오면 시적 공간은 담 이쪽과 저쪽으로 극단적으로 분리된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담 이쪽과 저쪽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니지만 쇠문으로 굳게 잠겨 있는 담 “저쪽”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화자는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고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로써 화자가 잃어버린 것은 부끄럽지 않은 순수한 자신의 모습이며 척박하고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본연의 ‘나’를 찾기 위해 계속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동주의 시에서 ‘고향’과 ‘길’은 이중적 의미를 띠고 있다. “길”은 시적 화자의 현재 삶을 드러내는 물리적 공간이자 미래에의 의지를 반영하는 인생의 시간으로 묘사된다. 또한 시대적 상황이 형상화되는 공적 공간이자 화자의 모습이 “남아있는”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길은 “풀 한 포기 없는” 부정적 공간이자 담 저쪽에 있는 나를 찾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지향으로의 공간이기도 하다. ‘고향’ 역시 어둠으로 가득 찬 절망의 공간이자 “백골 몰래” 찾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상향이며, “내 어머니 계신” 개인적 공간이자 모두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공동의 공간이다.

이렇듯 ‘고향’과 ‘길’에 대한 절망적 인식과 그 길 위에서 화해로운 세계를 꿈꾸는 화자의 이중적 의식을 통해 상실된 공간을 회복하려는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마무리

이 논문의 목적은 윤동주 시의 공간을 유형화하고 그 속에 투영된 시인의 세계인식과 시의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 경험에서 발생하며 특정 공간에 투사된 주체의 정서와 감정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시인의 의식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 묘사된 공간은 그것이 실재하는 공간이든 재구성된 공간이든 시인의 기억과 현실인식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운동주의 시에 선택된 공간은 대체로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공간들이다. 그것은 심오한 상징이나 세련된 비유들로 의미를 감추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텍스트에 묘사된 공간들은 “길”을 잃고 표류하는 젊은 시인이 느꼈던 소외감과 절망감을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고 상실된 “나”를 되찾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의 시에서 “우물”, “거울”, “방” 등의 공간은 타자와 외부세계로부터 차단되어 주체의 소외의식을 투영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 속에서 화자는 늘 혼자이며 분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개인적인 공간 인식으로,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없고 자신과 함께 할 이가 아무도 없다는 주체의 소외의식이 단절된 공간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보편적 정서와 달리 “거리”, “언덕”, “정거장” 등 개방된 공간들은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주체의 비극적 인식과 표류의식을 유발하고 있다. 그것은 시인의 삶과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체로 하여금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물” 밖 세계는 더 삭막하고 절망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주체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운동주 시에서 “고향”과 “길”은 서로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는 공간들이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혼용되고 동일한 공간에 대해 절망적 인식과 이상 세계로의 지향이 어우러져 이중적 의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세계인식을 거쳐 희망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비극적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 상실된 ‘나’를 회복하여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주체의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작품에서 공간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 있고 공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상상력과 의식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삶의 토대로서의 공간과 그 속에 투영된 시의식을 함께 고찰하여 운동주의 시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였으나 좀 더 다양하고 정치(精緻)한 공간 분석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부분은 논의의 장을 달리하여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권영민 편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사상사, 1997.

2. 논저

김수복, 「윤동주 시의 원형 상징 연구 2-‘방’과 ‘거울’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논문집』 20집, 단국대학교, 1986, 7-26면.

김신정, 「만주 이야기와 윤동주의 기억」, 『돈암어문학』 30집, 돈암어문학회, 2016, 189면.

김윤정, 「윤동주 시의 공간적 특질 연구」, 『한국시학연구』 24집, 한국시학회, 2009, 143-169면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88, 17면.

남송우,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의 한 양상」, 『한국문학논총』 40집, 한국문학회, 2005, 167-188면.

_____,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만주, 한국, 일본에서의 공간 인식의 한 양상 -〈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53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19-31면.

심재희, 「윤동주 시의 공간과 장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69-100면.

유재천, 「윤동주론」, 『배달말』 15호, 배달말학회, 1990, 73면.

이명찬, 「윤동주 시에 나타난 ‘방’의 상징성」, 『국어국문학』 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335-377면.

이승철, 「백석과 윤동주 시의 ‘방’ 텍스트 고찰」, 『비교문학』, 67권, 한국비교문학회, 2015, 233-261면.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194면.

이호덕 지음,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7, 43면.

임현순, 「윤동주 시의 디아스포라와 공간-시의 창작방식을 통해 나타난 저항

- 의지, 『우리어문연구』 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481-509면.
- 장만호, 「해방기 시의 공간 표상 방식 연구」, 『한국시와 시인의 선택』, 서정시학, 2015, 287면.
-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118면.
- 앨런 시겔, 권명수 옮김, 이재훈 감수,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326면.
- 에드워드 소자 외, 이무용 외 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106-107면.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예코브리히, 2001, 120-121면.
- 이-푸 투안, 구동희 ·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19면.

【Abstracts】

A Study on the Poetic Spaces and Poetic Consciousness of Yun Dong-ju

Kim, Soje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ategorize spaces selected in the poetry of Yun Dong-ju and to examine world perceptions and poetic consciousness projected within them. The perceptions of people occur from detailed experiences of subjects and they believe that the emotions and memories of subjects projected onto particular spaces are connected with a

poetic consciousness regarding one's self and the world. Space is always directed towards people and detailed analyses of people are valuable in that they reveal human imagination and awareness systems that exist within.

Spaces that are cut off in the poetry of Yun Dong-ju are described as spaces that are cut off from the outside, in which no one but the narrator appears. In spaces such as “a well”, “a mirror”, and “a room”, only the narrator exists and others cannot be seen. In cut-off spaces where everything is blocked off, the subject establishes the narrator who is left alone, displaying shyness and a sense of alienation. However, instead of stopping there, a thorough process of self-reflection is experienced and this leads to mental maturity.

Unlike universal emotions, open spaces such as “streets”, “hills”, and “stations” do not signify freedom but induce a form of tragic awareness and a drifting consciousness of the world. This seems to result from the life of the poet and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acts as a reason for

why the subject wanders, unable to stay in one place.

Of spaces selected in the poetry of Yun Dong-ju, there are spaces in which conflicting forms of poetic consciousness are expressed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to reveal the confused universal consciousness of the subject. In other words, public spaces and private spaces become mixed and desperate perceptions and orientations towards ideal worlds regarding identical spaces merge, revealing a double consciousness. However, by passing through negative and desperate universal consciousness and revealing orientations towards spaces of reconciliation and a hopeful world, the strong will of the subject to search for “a new world” can be verified.

Keywords : cut-off space, open space, double space, a sense of alienation, drifting consciousness, road searching

이 논문은 2020년 02월 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